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달 24일 오후, 한 포털사이트의 '실검'에 '부산국제영화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0월3일-12일·BIFF)가 뒀다. 개막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무슨 일이지? 궁금해 클릭했다. 그러자 동시에 수많은 매체에서 다룬 BIFF 기사들이 모니터 화면에 쏟아졌다. BIFF 조직위원회가 폐막식 MC로 배우 태인호와 이유영을 선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네티즌들은 조직위원회의 발표와 동시에 등장한 '따끈따끈한' 뉴스에 '좋아요'를 누르며 환호했다. 일부 기사에는 '영화제 관람후 가 볼 만한 부산 명소를 알려 달라'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엔 '진주 유등축제'가 포털 실검에 올랐다. BIFF와 차이점이 있다면 축제 전후로 태풍 '미탁'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개최 여부를 접치는 기사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개최된다는 뉴스에서부터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유등축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애뜻한 마음이었다. 한 블로거는 '미탁'이 진주 쪽으로 방향을

청바지와 맥주

를 것이라는 소식에 자신의 블로그에 작년 축제 사진을 올려놓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또 다른 이는 진주 남강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자랑하며 '진주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왜 유등 축제가 5년 연속 문광부로부터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BIFF와 '옥tober' 공통점

며칠 전에는 멀리 독일 뮌헨의 '옥tober 페스트'의 열기를 접했다. 뮌헨 출장길에 '일부러' 행사장을 찾았다는 지인이 카톡으로 보낸 사진에는 빅텐트 안에서 맥주잔을 들고 춤을 추는 수천 명의 흥겨운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순간, 평소 술과 거리가 멀지만 맥주 한잔 생각이 간절해졌다. 200여 년간 '맥주' 하나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

바야흐로 '축제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본격적인 가을인 9-10월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독특한 테마와 콘셉트를 내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광주에서만 디자인비엔날레,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세계김치축제,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영산강서창들녘역세, 굿모닝! 양묘 등 색깔 다른 축제 10여 개가 진행됐거나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한 해 40여 개의 축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맘때에 몰려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축제

다운 축제'는 몇 개나 될까. 정체성이나 상품성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축제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위에서 열거한 BIFF, 진주유등축제, 옥tober페스트처럼 관광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핫한' 축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지난달 7일 개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보자. 실험성 강한 순수 예술 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색채가 강한 디자인축제이지만 관람객 수는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 3배 줄었다. 하루 평균 5800명에서 올해는 20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디자인비엔날레를 주관하는 광주디자인센터는 중·고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면 단체 관람이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언제까지 학생 관람객 수에 의존할 것인지 안쓰럽다. 물론 영화라는 대중적인 장르의 힘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개막전부터 MC 선정, 상영작 라인업, 부대행사 등 모든 게 '뉴스'가 되는 BIFF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광주비엔날레와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BIFF 보다 1년 먼저 창설된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국내 외 언론 매체나 미술계에서 다뤄지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2016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전당 인근 5·18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프린지페스티벌도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성'에 비해 전당의 관객 유입 효과는 미미하다. 최근 전당의 방문객 수가 정체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폐막한 추억의 7080충장축제는 지속 가능한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준 현상이었다.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축제의 성공 요건인 '재미'와 '흥행'을 놓치지 않았다 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축제의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문광부로부터 '최우수'에서 '우수' 축제로 강등된 굴욕을 겪었지만, '7090'으로 세대를 확장하고 '동구에서 아시아로' 지역을 확장하는 등 심기일전한 덕분에 지난해 최우수 축제로 원상복귀했다. 특히 청바지라는 드레스코드를 도입하고 거리 퍼레이드, 아시아데이 등 체험 콘텐츠를 보강한 점이 통했다. 실제로 행사장 주변에는 올해 처음 선보인 대형 청바지 조형물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청바지족이 눈에 많이 띄었다.

지역축제 이젠 옥석 가릴 때

매년 우리나라에선 3000여 개의 축제가 열리지만 일부 축제는 불과 몇 회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반면 BIFF나 유등축제 등은 탄탄한 기획력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통해 도시를 살찌우는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잘 만든 축제'는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품격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독특한 볼거리와 실속이 없는 축제는 돈과 에너지를 축내는 애물단지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축제의 옥석(玉石)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 jhpark@kwangju.co.kr

은편칼럼

지난 추석의 기억



고성혁
시인

귀뚜라미 소리가 짙어지더니 단풍이 든다. 세상이 이리 시끄러운데도 계절은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있다. 이제 낙엽이 켜켜이 쌓이면 가을의 아름다운 쇠락이 또 한 번 우리를 지난 시절로 이끌 것이다. 낙엽 날리는 풍경. 나뭇가지에 붙은 마지막 이파리의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 이 계절이 오면 문득 가슴에 푸른 등 하나 켜진다. 과거가 어찌 일처럼 분명해지고 지난날의 잘못된 저문 날의 해거름처럼 뚜렷하다.

추석날 저녁, 양떼구름 속에서 능금처럼 빛나던 달이 불꽃 생각났다. 나와 아들은 그 달을 손가락질하며 아름답다고 말했다. 아마 마음 속으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으리라. 오래도록 그날 밤의 달을 기억해 그날처럼 취기가 있는 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따뜻한 온기로 마음을 적시던 좋겠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추석 말로만 들던 역귀성을 했다. 역귀성이 내게 일어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쩌다가 국민 4.8%의 행렬에 끼어들었다.

추석이 가까워지자 아내는 아이들의 수고로움을 이야기했다. 안 된다는 말에 두 사람 모두 할 일이 없는 '백수'라는 걸 강조하더니, 내려오는 교통편 때문에 두 아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무거운 마음으로 미리 성묘를 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는 은혜와 헌신의 다른 이름이었으니 나는 또 내 두 자식을 업어 키워 주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기대어 어차구니없게도 내 스스로를 용인한 것이다.

도착한 경기도의 거리는 거꾸로 한산했고 여유로움이 넘쳤다. 모처럼 아이들과 여유를 졌다. 온 식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얘기하

게 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에피소드를 진지하게 떠올리더니 나중에는 경건해졌다. 옛일들이 무척 소중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살이란 이처럼 뜬금없이 아름다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차를 몰고 내려왔다면 심야 시간이나 도착했을 것이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애를 태웠을 것이다. 피지 못해 결정한 역귀성이었지만 거기에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추석날 아침, 차를 올리고 난 후 창밖의 텅 빈 운동장을 보며 부모님을 상념하다가 근교에 계시는 장인과 장모를 떠올렸다. 오랫동안 뱃지 못한 장인과 장모를 생각하면 건 정말 절한 일이었다. 아이들도 단박에 동의했다. 너무 오랜만이라 여러 번에 걸쳐 차남과 통화했고 드디어 외진 산속에 누워계시는 두 분을 뵈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 아내의 모습에 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내려오는 길, 내 손을 잡아주었다.

저녁에는 둘러앉아 소주를 마셨고 나

중에는 소주가 부족해 큰 아이와 술을 사러 나왔다. 취기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운이 지난 자리였는데도 흐트린 하늘은 건네었고 눈부신 만월이 구름 속에서 쫓겨나 피어났었다. 달을 보며 우리 부자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언제 불렀는지 기억할 수도 없는 아들의 이름을. 취기가 아이에게 그런다 정(多情)을 불렀을지도 모르겠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 보지 못 한 길처럼'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삶은 언제나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을 통해 다른 길을 간다. 결국 다른 길은 다른 풍경을 만든다.

다른 생각이 더욱 풍성해지는 가을, 가을이 깊어간다. 늙은 참나무 고목 아래서 턱을 괴고 흠날리는 낙엽을 봐야겠다. 세상이 더 수상하지만 그것은 나 스스로 흘러가게 두고 나는 가족과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석상처럼 꼼짝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다 불현듯 어머니를 기리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다른 선택이 마음에 들기는 하겠을까? 가을 달빛 아래 개망초 흰 꽃잎들이 너무도 눈부시다.

기 고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한전의 역할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한전이 혁신도시에 온 것은 광주·전남의 축복이다." 지난해 김황식 전 총리(국가균형발전 특별법)를 만들어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10개 혁신도시로 내려 보내게 된다. 2014년 말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후 한전은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10개 혁신도시로 내려 보내게 된다. 2014년 말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후 한전은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첫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한전은 본사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빛가람 에너지 벨리'를 조성하여 광주·전남 지역을 '대한민국 전력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396개사와 투자 협약을 달성했고 이로 인한 투자 효과는 1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에너지 신산업 메카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인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의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한전공대가 성공하면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 들고, 그 인재들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창업해 에너지 벨리를 살리곤 벨리처럼 만들고 나아가 광주·전남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한전은 중소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에너지 벨리 기업들의 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역에 대한 공헌 활동이다. 한

전은 광주·전남을 에너지 신기술 국제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김대중센터에서 BIXPO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관람한 지역 내 대표적인 과학 기술 전시 행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여 기업은 2015년 114개사에서 2018년에는 282개사로 크게 늘었다.

셋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전은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ESS 및 HVDC 전력 신기술 분야의 교육을 시행하고,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 기기와 에너지 신기술 교육을 시행하여 우수한 기능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전력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정부 인프라, 소의 계층 지원 등과 같은 지역 밀착형 사업, 민간 참여가 어려운 대규모 신재생 사업은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여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아직도 한전의 상생 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한전에 큰 기대를 했는데 '사·도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지역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얼마 전 한전 배구단 연고지 유치 문제로 광주시와 촉발된 갈등도 이러한 지역 정서가 반영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전은 '지역과 상생 발전'이라는 본사 이진의 근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은 앞으로 에너지와 자동차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한전은 지역에 중요한 기업이고, 서로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인재 채용이 늘어나고 세월이 가면 결국 한전은 광주·전남의 기업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 한전을 식구처럼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한전이라는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느냐 여부는 서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社說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인도·차도 분리해야

전남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열 곳 중 여섯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하교 때는 물론 쉬는 시간조차도 학교 안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700곳 중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학교는 9335곳이었다. 문제는 이들 차도와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학교가 2861곳(30.6%)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남도내 학교들은 더욱 심각했다. 차량 통행로가 있는 674개 학교 가운데 60.7%(409곳)가 인도와 차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아 전국 시도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 지역도 차량 통행로가 있는 254개 학교 중 35.0%(89곳)가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에야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실상 예산 마련 등 사업 자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분리한다는 계획 아래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가 몰던 차량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도 없이 일단 짓고 보자' 안 된다

광주시 남구가 3년간의 준비 끝에 오는 개관하는 '오방 최홍중 기념관'이 콘텐츠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이 적어 공간 조성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방 최홍중(1880-1966) 선생은 평생을 빈민 구제, 독립운동, 선교 활동, 교육 운동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남구는 이러한 오방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지난 2016년 7월부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기념관은 옛 양림동 테니스장 부지에 지어졌으며, 옥상에 조성되는 정원은 인근 양림미술관과 유진백 선교사 기념관 등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기념관 개관에 맞춰 선보이는 유물이 생전에 오방 선생이 사용했던 러시아·러틴어·영어·한글 성경 4권과 대한민국의 건국훈장 애국장·훈장, 백범 김구 선생이 선물한 '노자 도덕경' 족자 1점 등 고 6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외에 수

장고에 보관된 유물 66점도 대부분 오방 선생이 소지했던 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서 오는 31일까지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오방·석아·의재' 전시를 열고 있는 의재미술관의 경우 오방 선생이 회장으로 있던 애국단체 '계유구락부' 회원 사진과, 광주 최초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졌던 오방 선생의 장례식 사진 등 희귀 자료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광주기독병원 제증역사관과 YMCA역사관 등은 오방 선생이 사용했던 의료기기와 활동 모습 사진 등을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흩어져 있는 오방 선생 관련 유물을 임대 형식이라도 옮겨와 한 곳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앞으로 구체적 콘텐츠 없이 짓고 보자는 식의 기념관은 관람객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오히려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치단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리아에서 미군의 지상군 역할을 하며 IS(이슬람국가)와 맞서 싸웠던 쿠르드족이 터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미국이 '엄청난 돈이 든다'는 이유로 쿠르드 '동맹'을 헌신적처럼 내버리고 시리아 철군을 한 게 원인이 됐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은 2014년부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IS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사실상 총알받이 역할을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쿠르드족 전사자만 1만1000여명이나 되

이에 쿠르드족은 동맹을 깨 미국을 버리고 한때 적으로 대립했던 시리아·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터키에 대응하고 있다. 동맹은 여러 국가들이 힘을 모아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국제 정치상의 제휴 관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 간 신뢰가 바탕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은 쉽다'고 말해 그의 동맹관을 믿을 수 없게 했다.

그동안 동맹의 문제마저도 비용적 차원에서 접근, 전통적 우방 및 혈맹의 가치를

동맹(同盟)

쿠르드 민병대는 IS가 지배했던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요충지를 모두 점령하고 사실상 자치를 누리 왔다. 그러면서 수 세기 동안 이루지 못했던 '독립국 건설'이라는 꿈을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독립국 건설은 커녕 군사 대국인 터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민족의 운명이 저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에 내몰렸다. 쿠르드족은 20세기 초부터 국가를 세우거나 자치정부를 만들기 위해 온갖 애를 써 왔지만, 강대국에 의해 이용만 당한 뒤 '토사구방' 당하는 비운의 역사를 가졌다.

팜해해 온 만큼 향후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 등이 '트럼프식 동맹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동맹의 경우 군사동맹의 최고 단계인 연합사 체제를 40년 이상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여전히 굳건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한미 충돌 국면이 진행 중인 만큼 한미 동맹 관리는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洙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